

# 왕조교체기 소재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문의 역할 변화와 그 의미\*

-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김강은\*\*

<차례>

1. 들어가며
2. 왕조교체기 서사 속 가문의 역할
3. 가문의 역할 변화와 소설사적 의미
4.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왕조교체기를 다룬 국문장편소설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대신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가문의 서사적 기능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문장편소설의 대부분이 가문의 변영과 주인공의 입신양명을 주요 서사 구조로 삼고, 국가의 위기를 일시적 배경으로만 활용해 온 것과 달리, <화산선계록>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왕조교체기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고, 새로운 왕조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는 가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사화한다. 위부는 창업주 조광윤과의 밀접한 유대를 통해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조의 유민과 왕실 후손을 포섭하고 흩어진 공동체를 재편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회복까지 도모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부는 단순한 충신이나 협력자의 범주를 넘어, 공적 권력이 부재한 시기에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윤리적·정치적 주체

\* 이 논문은 제1회 성균관대 차세대 한국학 연구자 학술대회(2025. 4. 25.)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정선우 선생님과 논지 전개의 방향을 세심하게 짚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 연구교수

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위부의 활약은 단지 가문의 영예에 그치지 않는다. 왕조가 안정된 이후, 위부의 행적은 돌연 역모의 가능성으로 전환되며 가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왕조 성립의 실질적 주역이자 창업 공신이었던 가문이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곧바로 제거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 권력에 대한 서사의 이중적 시선을 보여준다. 이때 위부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화산에 은거하는 결단은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전편인 <천수석>과도 연결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위부는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번성하지만, 후궁의 모함으로 인해 역모로 몰리고 은거하게 된다. <화산선계록>과 <천수석> 모두에서 가문은 공적 권력과 밀착될수록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국가 권력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통해 오히려 자율성과 생존을 확보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서사는 단지 개별 가문의 흥망을 넘어, 국가와 가문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사유하려는 국문장편소설의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화산선계록>은 국가의 공백을 메우는 가문이라는 설정을 통해 가문이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을 정면에서 조명하는 동시에, 국가와 가문 사이의 긴장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가문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주체로 형상화된다. 특히 19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 가문의 위기와 회복이 반복적으로 서사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화산선계록>은 그 시대 독자들이 인식한 국가와 가문의 권력 관계를 섬세하게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화산선계록>은 단순한 가문의 영달을 다룬 작품이 아니라, 국문장편소설이 공적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가문이라는 단위를 어떻게 성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 의미 있는 서사적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화산선계록, 왕조교체기, 국가, 가문, 창업

## 1. 들어가며

본고는 왕조교체기 소재 국문장편소설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문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문의 영달을 다루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왕조교체기는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소재라 보기는 어렵다. 왕조교체기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할 경우, 작자는 필연적으로 역사 기록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삼는 것은 국문장편소설이 주로 다루는 혼인담이나 부부 갈등을 전개하는 데 큰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국문장편소설 중 80%에 육박하는 작품이 송대와 명대를 배경으로 삼지만,<sup>1)</sup> 그중 상당수가 역사적 사건의 비중이 적거나 아예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라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sup>2)</sup> 서사의 중심을 집안 구성원 간의 갈등에 두는 국문장편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작자의 입장에서 왕조교체기는 선호하기 어려운 소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산선계록>은 국문장편소설 중에서도 왕조교체기를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오대십국(五代十國) 시기부터 송(宋) 건국까지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며, 그 속에서 벌일 가문이었던 위부가 쇠락하고 다시 번성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기 때문이다. 전편인 <천수석>이 주인공 위보형을 중심으로 위부의 흥망을 다루었다면, <화산선계록>은 위보형의 증손자인 위현이 시영(柴榮, 921~959), 조광윤(趙匡胤, 927~976) 등과 교유 관계를 맺으면서 위부를 다시 일으키는 서사를 그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역사 기록과는 거리가 먼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국가의 흥망 속에서 가문이 쇠락하고 재건되는 과정을 전·후편에 걸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 주수민, 「조선 후기 가문소설의 시·공간 배경과 재위 황제」, 『어문연구』 4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86~89쪽.

2) 이지영, 「조선시대 한글장편소설에 구현된 가상세계로서의 역사」,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111~137쪽.

그런데 위부가 겪는 흥망의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위부가 국가의 관계는 흔히 생각하는 군신 관계에서 미묘하게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위부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천자의 조력자로 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위부가 보완하며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산선계록>에서 위부는 국가의 존망에 해를 끼치는 악인을 대신 처단하고 왕조교체의 정당성을 확립하기도 하고, 몰락한 왕실의 후손을 보호하며 새 왕조의 정통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전란 속 유민들을 포섭하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 또한 위부의 역할이다. 시영, 조광윤 등 천자는 위부와 친밀하지만 협력자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으며,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가문이 일부 대신하는 듯한 서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국문장편소설의 장르적 특성상 주인공 가문이 벌이는 ‘영웅담’으로 치부하더라도, <화산선계록>에서 위부의 활약은 그 범주가 굉장히 큰 편이다.

이렇듯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문으로서 위부의 모습은 단순히 국문장편소설의 서사 관습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다각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왕조교체기 소재 국문장편소설에서 가문은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보완하였으며, 이 보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는 국문장편소설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국가를 대신하는 가문, 즉 위부의 역할 변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그동안 <화산선계록>과 관련해서는 전편인 <천수석>과의 관계<sup>3)</sup>나 작품 내 도교적 면

3) 김진세, 「<화산선계록> 연구 1」, 『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4; 김진세, 「조선조 대하소설 연구-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6; 「<천수석> 연작」,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최영아, 「<천수석>과 <화산선계록> 비교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7; 서정민,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의 대응적 성격과 연작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정숙,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서사구조-<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2013; 정재윤, 「<화산선계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4a.

모4), 여성 인물들의 형상화 방식5), 노비의 존재 방식6)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위부에 대한 조명이나 위부와 국가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마저도 전편인 <천수석>에 대한 논의에 치중되어 있다.

<화산선계록>의 전편인 <천수석>에서는 위부가 당 말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성장하다가 역모의 누명을 쓰고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위부가 국가와의 협력 속에서 위세를 떨치지만, 어느 순간 제거 대상이 됨으로써 국가와 가문 간의 관계에 내재된 긴장과 모순이 드러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7) 이러한 점은 후편인 <화산선계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후편에서는 위부가 국가 기능을 보완하는 실질적 주체로 서사화되며, 전조의 포섭과 유민 통합 등 훨씬 적극적인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왕조교체기 소재 국문장편소설에서 가문의 역할을 온전히

- 
- 4)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 연구: <천수석> 및 <임화정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8; 홍현성, 「대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 면모 주인공 연구- '화산선계록', '취승루'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82, 한국문화학회, 2019; 채윤미,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선계와 인물 정체성의 관계」, 『도교문화연구』 57, 한국도교문화학회, 2022.
  - 5) 장시광,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계모이야기의 양상과 의미」, 『국제어문』 28, 국제어문학회, 2003;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 연구-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한국고소설학회, 2006; 정재운, 「문창성(文昌星)의 전용(轉用) 양상과 의미- <유씨삼대록>과 <화산선계록>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 『영주어문』 56, 영주어문학회, 2024b.
  - 6) 김민정,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조력자로서의 婢僕-비취·비운 남매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21; 김민정,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여주인-시비(侍婢)'의 관계-시비 설란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1, 한국고소설학회, 2021; 이지하, 「<화산선계록> 속 노비 형상화의 특징과 노비의 존재성」, 『반교어문연구』 62, 반교어문학회, 2022.
  - 7) 김강은, 「<천수석>에 구현된 국가의 존망과 가문의 존재 양상」,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편인 <화산선계록>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와 가문의 관계에 대한 국문장편소설 나름의 문제 의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 2. 왕조교체기 서사 속 가문의 역할

### 1) 창업주, 그 이상의 조력자

왕조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 왕조의 건립 명분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있다. 고소설에서 왕조교체는 대부분 전조의 타락과 민심의 상실, 창업주의 도덕적·정치적 우위가 결합된 결과로 묘사된다. 기존의 왕조가 폭정이나 향락에 빠져 민심을 상실한 상태에서 천명을 지닌 영웅이 등장하고, 그가 전란이나 외적의 침입 상황에서 백성과 국가를 구하면서 통치 권한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옥주호연>, <장백전> 같은 영웅소설 계열 작품에서 천명은 교체를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현 왕조를 대변하는 인물이 창업주의 영웅성을 인정하고 선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왕조교체가 이루어진다. 즉 질서 회복이 필요한 암울한 상황에서, 창업주의 우위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산선계록>에서 이러한 요건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민심에 대한 언급도 없고, 송의 창업주인 조광윤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다. 작품 도중에 조광윤이 천명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는 하나, 조광윤 개인의 영웅성이나 특별한 행적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애초에 <화산선계록>이 위현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8) <화산선계록>은 80권 80책으로, 장서각 소장본이 현존 유일본으로 전해진다. 표제는 '華山仙界錄', 내제는 '화산선계록'으로 되어 있다. 본 논의에서는 디지털장서각 소장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현과 조광윤, 시영 등 오대 말기의 핵심 인물들이 친구라는 파격적인 설정을 통해 이들을 동등한 관계로 그려내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작품 초반부터 위현과 조광윤, 시영이 친구를 맺는 과정을 길게 서술하며, 위현의 사촌누이들과 조광윤, 시영이 혼인하는 것으로 그려 이들을 인척 관계로 연결한다. 이는 여타의 고소설에서 왕위에 오를 인물이 처음부터 영웅으로 부상하는 것과는 다르다. 위현은 조광윤의 특출함을 알아보지만 정작 서사에서 조광윤의 뛰어난 행적은 표면화되지 않으며, 작품은 이들의 특별한 우정을 강조하는 데 집중한다.

벼슬에 오른 이후에도 이들의 우정은 계속되는데, <화산선계록>은 특히 조광윤과 위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적 관계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작중에서 조광윤은 서경유수로 있으면서 당춘의 고발 사건 판결을 위현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낙향 중인 위현에게는 서달(西筵)을 치기 위한 출정을 함께하자고 제안한다. 이때 조광윤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동등한 입장에서 위현의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조광윤은 위현에게 자신에 대한 정을 시험하듯 묻기도 하고, 위현 없이는 벼슬길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위현에 대한 감정이 혈육과도 같다고 고백하기도 한다.<sup>9)</sup>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부터 외적의 침입에 맞서는 출정까지, <화산선계록>에서 조광윤의 주요 행적은 대부분 위현의 조언과 개입을 통해 가능해

9) 늦은 형미지의(兄妹之誼)로 무이(撫愛)호를 넓고 밤은 도공을 뵈셔 즈니, 공이 상의 고상(高爽)호 성정이 잇스니 상상(常常) 우어 왈, “네 날노 더부러 년갑(年甲)이 니도호되, 봉우의 도와 형대의 정으로 디접호른 너의 지품이 인뉴의 썬여느물 인중호미니 네 니르라, 조여뵈 날노 더부러 정의 엇더호뇨?” (중략) 도공이 웃고 어루만져 왈, “너와 나는 골육의 정이 잇스니 마음 알미 지극하다 호리로다. 니 썬 텃하 영웅의 벗이 불가승슈(不可勝數)로디 너 궂치 심익(心愛)호는 즈는 업는지라. 네 업스면 벼슬의 길홀 뜻츠리라.” (<화산선계록> 권5, 42~44쪽)

진다.

물론 영웅의 일대기에 나타나는 조력자처럼, 창업주 조광윤을 영웅으로 본다면 위현은 단순히 영웅을 돕는 절친한 친구 정도의 역할로 볼 수도 있다. 창업주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의 존재는, 그의 인간성과 평판을 뒷받침해주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광윤의 모든 행적이 위현과 함께 이뤄낸 결과이고 위현의 개입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역할이 단순한 조력자라고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조광윤의 치적은 위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보이며, 또 그러한 치적이 쌓여 천자로 즉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가 바로 광소옥의 등장부터 처단까지의 과정이다.

광소옥은 후주(後周) 태조 광위(郭威, 904~951)의 딸로, 실존 인물이 아닌 서사적으로 창작된 허구의 인물이다. 그녀는 일찍이 군부에 투신한 아버지와 떨어져 모친 위씨 밑에서 성장하며, 광위가 후주의 천자로 즉위한 후에는 숙정공주에 봉해진다. 그러나 공주로 책봉된 지 오래지 않아 광위가 사망하고, 시영이 새로운 천자로 즉위하게 된다. 광소옥은 태조의 외동딸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모친 위태후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욕이 강하고 시영의 권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서사화된다. 예컨대 위현과의 혼인에 실패하자 시영 앞에서 모친과 함께 자결 소동을 벌이고, 혼인 이후 위현이 자신을 냉대하자 위현의 세 부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적과 내통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한 이후에는, 아예 위현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다. 이처럼 광소옥은 단순히 욕망이 많거나 음란한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권력욕과 지배욕을 통해 국가 질서를 교란하고 위부의 안정을 위협하는 악인으로 형상화된다.

광소옥의 서사는 위현을 위협하고 세 부인에게 고난을 안긴다는 점에서 가문 차원의 적대자로 기능하지만, 왕조교체 서사로 본다면 국가의 위기로 직결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시영이 사망한 후 공제(恭帝)

시종훈(柴宗訓, 953~973)이 즉위하자 곽소옥은 더욱 권력을 전횡하며, 급기야 시종훈과 그 모친인 부귀비를 죽이고 간신 한옹과 혼인하여 스스로 황후에 즉위하기 때문이다. 서사 초반에 단순히 위현의 독점적인 애정을 탐내는 것처럼 보이던 곽소옥은, 어느 순간 국가의 암적인 존재로 부상하여 왕조교체의 명분을 제공한다. 국문장편소설의 공주혼 서사에서 악인으로 등장하는 공주가 드문 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혼인 후 가문 내에서 계락을 꾸미는 데 비해 곽소옥은 위부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자체에 위기를 불러오는 정치적 악인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에 조광윤과 위현은 군사를 일으켜 곽소옥과 한옹 무리를 내쫓고, 위현은 조광윤을 천자로 추대한다.

도공[조광윤]이 츠스를 알고 강기 분한<sup>10</sup>를 니끼지 못하여 양후로 더브러 격절 탄돌<sup>11</sup>허더니, 히 밧고이미 양휘[위현] 부모기 하직하고 하늘 뜻을 밧드러 신·화 낭인으로 더브러 도공을 보호하여, 장들을 초모하여 군스를 크게 니르히, 경성을 돛마듯 드러가 일반 간당을 주멸하고 바로 켈니를 춤돌홀 신, 문 뤼신보 간덕 한옹 등을 델티하다가 도공과 위공의 기병<sup>12</sup>를 당하여 슈무독도하여 합세하니 한옹 쥐 무리 엇지 당허리오. (중략) 일시의 익살하고 국난을 정허미 문무신보 다 모혀 나라히 하로도 님군이 업지 못홀지라. 뉴덕즈를 굴힐시 의논이 분분허더니 모든 의논이 도공의게 도라오니 도공이 경황하여 구지 스양허디 양휘 하늘 뜻을 밧혀 순수 천명<sup>13</sup>을 청허디, 도공이 여러번 스양허다가 마지못하여 데위의 오르니 이 곳 남송황데라.<sup>10)</sup>

기실 역사 기록에서 조광윤이 천자로 즉위하는 결정적 계기가 공제 시종훈에게서 왕위를 선양 받는 진교병변(陳橋兵變)임을 생각한다면, <화산선계록>의 이러한 서사 전개 방식은 복잡한 정치 상황을 제거하고 인물 관계

10) <화산선계록> 권20, 56~59쪽. 밑줄은 인용자.

를 선악의 구도로 재편함으로써 왕조교체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1)</sup> 이미 악인들이 정변을 일으켰으므로, 자연스럽게 그와 대립하는 조광윤과 위현이 이를 ‘바로잡을’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왕조교체의 명분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곽소옥의 서사는 위부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확대되고 위현을 왕조교체의 주역으로 만든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위현에게 있어 곽소옥은 국가의 적대자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적대자인바, 왕조교체 과정에서 위현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심지어 조광윤보다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곽소옥을 내쫓는 장면에서는 조광윤과 위현이 군사를 일으켜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조광윤 개인의 영웅적 활약이 아니라 두 인물 간의 연대와 협력이 강조된다.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현이 조광윤을 천자로 추대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곽소옥과 한웅이 도망한 후, 위현은 조광윤에게 천명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새로운 천자로 추대한다. 언뜻 보기에 이는 창업주에게 부여된 천명과 그의 덕성을

11) 진교병변은 송 왕조 건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송대부터 성격이 다른 다양한 해석을 낳아 왔다. 정변의 전개 과정, 조광윤을 중심으로 한 주동자들의 활동, 그리고 정변의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후대의 의문에 대해 <옥주호연>과 같은 작품은 조광윤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광윤이 천명을 받은 것을 알고 천자가 자발적으로 왕위를 선양했다’는 방식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주관적 해석에 머무는 천명론보다는 명확한 악인을 설정하여 현재의 천자를 제거하고 왕위를 공식으로 만드는 방식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에 <화산선계록>은 곽소옥과 한웅 같은 악인을 등장시켜 시종훈을 제거하게 하고, 그로 인해 생긴 왕위의 공백을 ‘천명을 받은’ 조광윤이 메우는 서사를 통해 왕조교체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이미 악인의 간계로 공제가 사망한 상황에서 조광윤은 이들을 징벌하는 정의로운 존재로 등장함으로써 왕조교체에 대한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현은 이 전 과정에서 조광윤과 협력하는 동반자로 그려진다. 진교병변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양종국, 「송왕조 건국기 진교역 정변과 천명사상」, 『역사와 담론』 48, 호서사학회, 2007.

12) 정재윤(2024a), 앞의 논문, 45~46쪽.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정작 창업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은 당사자인 조광윤이 아닌 위현의 시각에서 서술된다. 위현은 시영의 은혜를 저버려도 되는지, 이 혼란한 정국을 그저 지켜보고 있기만 해도 되는지를 두고 갈등하며 앞으로의 처세에 대해 고민한다.<sup>13)</sup> 이때 천상에서 내려온 제갈량이 등장해서 자신이 주군에 대한 절의를 지킨 것이 아무런 실익 없는 한스러운 선택이었다고 회고하고, 위현의 선조인 정국공(鄭國公) 위징(魏徵, 580~643)이 당을 섬긴 것도 후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며 창업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넣는다.<sup>14)</sup> 그리고 이 장면 직후 위현은 조광윤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고 궤소옥과 한웅을 토벌한다. 결국 왕조를 교체하는 데 있어 위현은 창업주에 못지않게 갈등하고 결단을 내리는 주체로 활약하며, 작품은 조광윤의 즉위조차 위현의 판단과 행동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듯 <화산선계록>에서 위현은 조광윤보다 더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움직이며, 서사 구성상 왕조교체의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물론 영웅소설 같은 소설 유형에서는 가문의 적대자가 국가의 적대자로 확장되고, 주인공이 이 적대자를 처치함으로써 가문과 국가를 동시에 구하는 서사 구조가 하나의 유형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13) 요컨대 위현이 고민하는 문제는, 혼란한 군주의 신하가 되어 난세를 유지한 채 절의를 다할 것인가와 능력 있는 새로운 군주의 신하가 되어 난세를 끝내고 백성을 살리는 실리를 실천할 것인가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채운미(2022), 앞의 논문, 279쪽). 이는 은거와 출사 사이에서의 고뇌처럼 보이지만, 아직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지 않았고 조광윤 역시 창업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고민이 발생한다는 점은, 위현의 결단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르며 선취적인 성격을 띠는 사실을 보여준다.

14) “그디 전세 일을 망연(茫然)이 닛고 고인을 맞느니미 과도이 둔경호는도다. (중략) 관중(管仲)이 환공(桓公)을 섬기미 후세의 불충이라 니르지 아니커늘, 흐믈며 세둥이 즈규(子規)의 비명이 아니오, 그디 선도 정국공이 광충어당도(廣忠於唐朝)호되 후세 튜츄의 말허리 업스니, 그디의 명달호무로 엇지 싱각이 업느뇨?”(<화산선계록> 권20, 50~52쪽).

<화산선계록>에서 위현은 단순히 가문의 적대자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국가 권력이 무너진 혼란 속에서 정치적 정당성과 윤리적 판단 능력을 겸비한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광윤이 창업주의 형식적 주체라면, 위현은 그 창업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기반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설계자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 2) 전조(前朝)의 포섭과 정당성 확보

살펴본 것처럼, <화산선계록>에서 위현은 창업주인 조광윤의 조력자를 넘어 송 건국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며 실질적인 일등공신으로 자리 잡는다. 곧 <화산선계록>의 왕조교체 서사는 창업주 개인의 능력에 의해 정당화되기보다는, 위현과 같은 조력자와의 관계망 속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왕조교체의 명분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해당 왕조의 정당성이 곧바로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창업주가 전조의 혈통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화산선계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조의 인물을 포섭함으로써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여기서도 위현을 비롯한 위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화산선계록>에서 시영은 위현, 조광윤과 친구 관계로 후주 세종(世宗)에 즉위한다. 시영에게는 위현의 사촌누이인 두월영(두황후)과 귀비 부씨가 있었는데, 두황후에게서 자손을 보지 못해 부귀비의 아들 시중훈을 태자로 삼는다.<sup>15)</sup> 두황후는 뒤늦게 시명훈을 출산하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황후는 사망하고, 시명훈은 진왕에 봉해진다. 시영 사후 시중훈은 공제로 즉위하고 모친인 부귀비가 수렴청정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괄소옥 일당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왕위는 공석 상태에

15) 여기서 두월영과 시명훈은 허구의 인물로 <화산선계록>에서 창작한 것이다.

놓이게 된다. 이후 조광윤과 위현이 곽소옥과 한옹을 토벌하는데, 작품은 ‘임금의 자리를 하루도 비워둘 수 없으므로’ 위현이 조광윤을 추천하여 천자로 즉위시켰다고 설명한다. 이전 왕조의 천자가 물리적으로 제거되었으므로, 천명을 받은 조광윤이 천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조광윤이 과연 정통성 있는 천자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시영에게는 시명훈 외에도 또 다른 아들 시명훈이 존재하며, 인물 관계상 시명훈은 조광윤의 처조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한다면 조광윤이 굳이 천자에 올라야 할 당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시각에 따라서는 시명훈이 올라야 할 자리를 조광윤이 차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시명훈은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작품 전개상 반드시 필요한 존재도 아니다. 이처럼 조광윤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설정이 겹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선계록>은 굳이 시명훈이라는 인물을 서사에 포함함으로써 왕조교체의 정통성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시명훈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설정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부분은 위현의 꿈에 시영이 나오는 장면이다. <화산선계록>에서 시영은 사망하기 직전 위현에게 시명훈을 부탁하고,<sup>16)</sup> 사망한 후에도 위현의 꿈에 나와 재차 아들을 부탁한다.

세동(世宗)이 금관황포(金管黃袍)로 늘호여 연(輦)의 느리시니 양휘[위현이] 반가오미 넘져 고두복지(叩頭伏地)호여 오열뉴체(嗚咽流涕)하니, 세동이

16) 세동은 명주(名主)라. 반드시 진왕[시명훈]이 지렁치 못할 줄 헤으려 도·위 낭공의게 탁고(託孤)하시니 이공이 고두뉴체(叩頭流涕)호온디, 상이 근시(近侍)로 진왕을 느으오라 호미 한상궁이 진왕을 밧드려 느으오니 상이 진왕으로 위공[위현]을 쥬스알, “초으는 곳 경의 아들이니 범연(泛然)이 아지말나.” 하시고 진왕다려 니르시디, “저 위선성은 느의 죽마고위(竹馬故友)니 너는 날과 궤치 썩기라.”(<화산선계록> 권18, 31쪽).

친히 붓드러 니르혀스 닛그러 던의 오르시미, 우러러 뵈오니 농미(龍眉)의 처연(悽然)히미 두루고, 턴안의 비식이 그득혀스 우연(憂然) 탄식 왈,

“짐이 세연(世緣)이 박(薄)혀여 일족이 턴당의 도라가니 도시 하날 명이라. 한(恨)홀 비 업스디, 경이 춤심이 일월을 스못츠 오리도록 닛지 못혀여 슬허히미 간절히니 엇지 감동히미 업스리오. 경은 본디 송도(宋朝)를 위혀여 강생(降生)히니, 짐이 경의 풍신지화를 스랑혀여 잠간 비리, 오년을 근시(近侍)를 삼으 그특흔 모칙을 다혀여 나라홀 평안케 하고, 어진 말슴을 드러 빅성을 어루만져 후세 스칙(史冊)의 짐의 영명(英名)을 일궈게 히미 전혀 경의 덕이여늘, 토번과 서촉을 평정혀여 짐의 근심을 덜고, 공적(功績)이 청소(靑史)의 빛노되, 경이 고집히 상(賞)을 스양히미, 능히 덕을 감지 못혀여서 짐으로 인혀여 디화(大禍)의 빌미를 어덜거늘, 니 오히로 경을 맞지니 화시(禍事) 불우히 기름 갖혀여 경의 몸이 위티히니, 오으(吾兒)의 초로(草露)又흔 잔명이 경의 어지르미 아니면 엇지 보전흔를 어드리오. 경의 부부의 현심성덕(賢心聖德)으로 니 오히 명이 니이고 즈손이 번성홀지라. 감스흔를 니끼지 못히거늘, 추묘(追慕) 비읍(悲泣)흔를 보니 더욱 감동혀여 잠간 니르쾌라.”<sup>17)</sup>

시영은 위현의 꿈에 나타나 위현이 사실 송 건국을 위해 태어난 인물이라며 왕조교체를 긍정하는 한편, 아들 시명훈을 보호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남긴다. 후주의 천자였던 시영이 송의 건국을 자진해서 천명이라 인정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태자인 시종훈보다 시명훈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부탁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시영은 사망하기 전에도 시종훈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오직 시명훈만을 부탁하는데, 애초부터 시영은 후사를 이을 존재로 시명훈만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기록과 달리 가상 인물인 시명훈을 적자로, 공제 시종훈을 서자로 설정한 부분에서도 두드러진다. 비록 시명훈이 늦게 태어났으므로 태자 책봉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나, 혈통적으로 명백한 적자이며 가문과 왕실 양쪽 계보를 모

17) <화산선계록> 권20, 34~37쪽. 밑줄은 인용자.

두 이어받는 인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sup>18)</sup> 시명훈은 왕위를 계승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주의 정통을 잇는 매개자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듯 시명훈의 특별한 위치 때문에, 공제 사후 <화산선계록>에서는 시명훈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 의해 보호받는지가 후주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핵심 문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전조의 유일한 후손인 시명훈이 제거된다면 이는 곧 후주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왕조가 시명훈을 보호할 경우 전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의 흐름 속에서 왕조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역할을 개국 공신인 위현의 가문이 부담함으로써, <화산선계록>은 왕조교체 과정에서 다소 꺾끄러울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전조의 계승과 새로운 왕조의 성립을 조화롭게 연결한다. 시명훈이 조광윤의 자녀로 양육될 경우 송 왕실의 정통성과 계승 구도에 혼선을 주게 되지만, 위부에서 성장한다면 전조의 명맥을 상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새 왕조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작품은 시명훈을 계속해서 봉작명인 ‘진왕’으로 지칭하면서도, 위현과 세 부인이 처음부터 그에게 말을 낮추고 친아들과 동등하게 양육한다는 설정을 추가한다.<sup>20)</sup> 시명훈의 생모가 조광윤의 부인

18) 선행연구에서는 시영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에게 천명이 없다는 것을 안 임금이 왕조 대신에게 가문을 보존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선택을 취한 것이라며, 가문과 혈족을 위해 멸망이 결정된 왕조를 포기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재운(2024a), 앞의 논문, 173~174쪽). 본고는 시영의 이러한 선택이 왕조교체의 상황과 결합하여 새로운 왕조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작용했다고 본다.

19) 이렇듯 가문을 경유하여 왕실을 계승하고 정통성으로 활용하는 서사는 <화산선계록>의 전편인 <천수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천수석>은 동창공주의 부마인 위보형을 주인공으로 삼아 당 말기부터 후당 명종대까지를 서사의 시간축으로 삼았는데, 작품은 후당 명종 이사원이 사실 위보형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설정을 통해 당 왕실의 정통성을 후당으로 끌어들인다. 가문을 통해 당에서 후당으로 넘어가는 왕조교체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강은(2021), 앞의 논문, 146~159쪽 참조.

20) 이렇듯 입양을 통해 혈연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는 모습은 전편인 <천수

과 자매 관계이므로 시명훈의 입장에서 촌수로 더 가까운 쪽은 조광윤이지만, 시명훈은 위현을 아버지라 부르며 애뜻한 부자 관계를 이어가고 조광윤과의 친척 관계는 강조되지 않는다. 후주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호칭은 유지하면서도, 가문 내부로 흡수시켜 위부의 일원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명훈은 등장부터 작품이 끝나는 시점까지, 위부의 일원이 되어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가족의 정을 쌓아나간다. 곧 <화산선계록>은 정통성 계승의 과정을 가문이라는 틀 안에서 재구성하며, 그 중심에 위부를 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공신 가문으로서 창업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도 특별하지만, 위부가 국가의 정통성과 계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명분’까지도 감당하는 주체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위부의 개입은 위부가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 전조의 정통성을 수습하고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조율하는 핵심 주체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업주가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이 가문 차원으로 넘어오고,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율되면서 해결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화산선계록>은 위부라는 가문을 통해, 왕조교체의 정치적·윤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왕조교체의 연속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서사라 할 수 있다.

### 3) 유민의 통합과 공동체의 재편

주지하듯이 <화산선계록>에서 위부는 왕조교체의 정당성과 전조와의 연속성을 확립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즉 왕조교체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인 정통성 확보가 위부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성만으로 왕

---

석>에서 드러난다. <천수석>에서 위보형과 설옥영의 아들 사원은 동창공주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후에는 이극용 부부 슬하에서 성장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 관계가 혈연을 초월한 가족 관계이자, 부조리한 현실을 뚫고 나갈 대안적 관계를 모색한 것이라 평가하였다. 이지하, 「가족관계를 통해 본 <천수석>의 특징과 의미」, 『고소설연구』 46, 한국고소설학회, 2018, 273쪽.

조교체의 모든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왕조가 수립된 이후,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일 역시 왕조교체의 완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작동한다. 특히 <화산선계록>은 다양한 국가가 난립하고 멸망하기를 반복하는 왕조교체기를 배경으로 하므로, 통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흩어진 유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재편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화산선계록> 속 위부는 정통성의 확보를 넘어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면에서 주목할 인물은 바로 이옥수이다. <화산선계록>의 앞부분에는 조광윤을 도와 영웅적 행보를 이어가는 위현의 서사 외에도, 훗날 그의 부인이 되는 이옥수의 서사가 병행되어 전개된다. 이옥수는 이우금(李友金)의 후손이자 후당의 태학사를 지낸 이한성의 딸로, 가문이 쇠락한 상태에서 후처 탕씨에 의해 강제로 혼인할 위기에 처한다. 이에 그는 집을 떠나 유랑하다 유소저, 정소저를 만나 의자매를 맺고, 위현과 혼인한 이후에는 곽소옥의 자객을 피해 화산에 가다가 소씨 가족과 양씨 남매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전대 왕조의 유민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 니쇼제[이옥수개] 왈, “첩은 데왕(帝王)의 즈손이요 공후(公侯)의 묘예(苗裔)니, 당나라 망치 야나실 제 십팔제후를 모도와 황하가의셔 다숫 히 싹흙헛던 더당왕 니우금(李右金)의 후손이요, 북한 태도 시절의 농닌(龍鱗)을 맞드러 금난던(金鬘殿)에서 정소를 다스리던 니혹스의 녀지라.” (중략) 드디여 근본을 즈시 니르니, 장소저는 뉴시니 후한(後漢) 고도(高祖)의 공췌러니, 느라히 망흐미 정쳐스를 도츠 예 와 의지하니 이 집 쇼저는 정시니 니외종간(內外從間)이러라.<sup>21)</sup>

21) <화산선계록> 권6, 24~28쪽.

② 노피 우러러 부인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고두 왈, “첩의 주인은 당나라 어스티우 쇼공의 독지(獨子)시니, 명동(明宗) 황애(皇爺) 봉헌 후, 민데(閔帝) 혼암하고 노왕(潞王)이 방즈허거늘, 상쇼허여 노왕을 뫼이여 이곳의 귀향 와 계시더니, (중략) 노애 익훼허스 작동의 망(亡)하시니 이곳이 타향이라. 친척 이 업고 뉘 구허리잇가?”<sup>22)</sup>

③ 기익 공슈 디왈, “부인이 궁측(窮側)헌 정스를 무르시니 엇지 알외지 아니 리잇고? 소즈의 성은 양이니 조뷔(祖父) 당쥬(唐朝) 어스(御使)로 쥬온(朱溫)의 역턴무도(逆天無道)허를 통한(痛恨)허여 상쇼허여 쇼동황테(昭宗皇帝) 익 쥬의 귀향 보니시니, 쳐즈를 닛그러 가서 오리지 아냐 당이 망허니, 도뷔 주야로 통곡허여 인허여 망(亡)하시니, 부피 이 썩히 와 고향 친척의 톨문을 알고져 허다가, 쇼즈의 남뎡 죄악이 호디(浩大)허와 부모를 여회고 일신이 의뢰무탁(依賴無託)허온디, 누의 이통허여 병잔인성(病殘人生)이 되오니 두 눈은 청맹(青盲)이 되어 보지 못허고 두 팔을 못 쓰고 한 다리 저러 먼니 것지 못허니, 남뎡 닛그러 업디지미 도석(朝夕)의 잇느이다.”<sup>23)</sup>

위의 인용문 속 인물들은 이옥수가 유랑 중에 만난 인물들로, 구체적인 처지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갈 곳 없는 유민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①에서 유소저는 후한(後漢) 고조(高祖) 유지원(劉知遠, 895~948)의 딸이지만, 후한이 멸망한 뒤에는 갈 곳 없어 친척인 정처사의 집에 머물며 내외종간인 정소저와 함께 지낸다. ②와 ③에서는 소씨 가족과 양씨 남매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혼암한 천자 때문에 가족이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하게 되며 왕조가 멸망하자 일가친척 없이 떠도는 처지에 놓인 이들이다. 이들은 오랜 타지 생활로 병약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강제로 혼인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명문가의 후손이었으나 왕조교체기의

22) <화산선계록> 권15, 65~67쪽.

23) <화산선계록> 권16, 20~22쪽.

혼란 속에서 가족을 잃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다. <화산선계록>은 이렇듯 영락한 명문가의 서사를 통해 왕조교체기의 혼란상을 드러내는 한편, 흩어진 유민들의 사정을 일일이 드러내어 그들의 존재를 가시화한다.

이옥수는 이들과 연대하여 가족의 범주로 포섭한다. 유소저, 정소저와는 의자매 관계를 맺고 함께 경사로 이동하며, 위현과 혼인한 후에는 소씨 가족과 양씨 남매를 위부로 거두어들임으로써 가문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연대를 보여준다. ㉠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옥수 자신 또한 몰락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갈 곳 없는 처지인바, 이러한 공통된 처지 속에서 유민들과 어려움을 나누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서사는 단지 이옥수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위현의 서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현은 후진(後晉) 시기 절도사의 아들이었으나 지금은 종으로 전락한 신앙을 속량하고, 탐욕스러운 관리에 맞서 여동생을 지키려던 화진의 처지를 이해하며 그를 자신의 심복으로 받아들인다. 또 화진의 여동생과 신앙을 혼인시켜 혼맥을 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유사 가족 관계로 상실된 유대를 회복하고, 혼인을 매개로 재기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왕조교체 전후로 위부는 취약해진 이들을 포섭하고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체로 묘사된다. 정치적 영향력도 크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가문인 위부가, 가문이라는 안전망을 잃은 개인을 포용하고 이들이 서로 연대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화산선계록>에서는 각기 흩어졌던 유민들이 위부를 매개로 소통함으로써 몰랐던 친척 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하고, 위부의 포용을 받았던 인물이 후일 다른 인물을 포용하는 새로운 구원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소씨 가문과 정부인, 이옥수와 양씨 남매가 외가로 이어진 먼 친척 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거나, 소씨 가문의 아들인 소세광이 어사가 되어 새로운 약자를 구원하는 서사로 연결되는 것이다.<sup>24)</sup> 그리고 위부는 그러한 연대의 거점이 되어, 해체된 공동체를 재조직하고 통합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왕조교체의

정당성 확보부터 전조와의 연결과 유민의 통합까지, 위부는 공적 권력이 부재한 시기에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윤리적 대리자로 서사화되는 것이다.<sup>25)</sup>

### 3. 가문의 역할 변화와 소설사적 의미

#### 1) 국가와 가문 간의 긴장과 균열

이처럼 <화산선계록>에서 위부는 왕조교체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 공동체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를 보완하는 면모를 보인다. 주목할 점은 <화산선계록>의 이러한 양상이 가문과 국가의 협력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위헌이 조광윤과 비슷하게 느껴지며 때로는 위헌의 역할이 조광윤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왕조교체의 실질적인 과정은 위헌과 조광윤이 협력할 수 있어도 정통성이나 공동체의 통합은 엄연히 새 왕조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가문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왕조교체를 다룬 여타의 고소설 작품들이 창업주를 또 다른 영웅으로 만들고, 주인공과 협력하며 대권을 이뤄내는 데 집중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sup>26)</sup> 그렇다면 <화산선계록>에서 가문

24) 선행연구는 <화산선계록>의 이러한 서사를 ‘구원담의 반복’으로 명명하며, 반복되는 구원의 서사가 위부의 공적으로 수렴되어 결국 위부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정재운(2024a), 앞의 논문, 134쪽.). 사회 통합의 역할을 이옥수와 위헌이 동시에 맡음으로써, 위헌 개인의 치적이 아닌 위부의 공적으로 의미화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25) 그러한 점에서 위부가 후주 황제의 아들인 시명훈을 양자로 삼는 설정은, 왕조교체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공동체 통합의 측면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천자의 아들이었으나 악인의 간계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조차 없던 시명훈을 위부가 보호함으로써, 전조를 포섭하고 새로운 질서 아래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서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26) 동일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옥주호연>에서는 능동적인 영웅 형상의 조광윤이 그러

의 이러한 역할 변화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가문의 창달과 번영에 집중하는 국문장편소설의 장르적 특성으로 비추어볼 때, <화산선계록>의 왕조교체 서사는 위부라는 가문이 주인공이므로 위부 위주의 서사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주인공 가문인 위부의 입장에서 왕조교체기를 다루었으니, 왕조교체의 전 과정에 위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산선계록>에서 위부가 단지 왕조교체의 ‘협력자’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와 가문 간의 미묘한 균열이 보인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 80권인 <화산선계록>에서 왕조교체 서사는 20권에서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위부의 자녀 결연담이 주로 등장하는데, 작품 후반부에는 엉뚱하게 조정옥에 의한 위부와 진왕의 역모 모함 사건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조정옥은 위헌과 함께 창업에 일조한 조보(趙普, 922~992)의 손자인데, 자신과 혼인할 여자인 설채주를 진왕 시명훈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는다. 이에 조정옥은 시명훈과 그의 양부인 위헌을 제거하기 위해 역모 사건을 꾸미고, 가짜 고변서를 만들어 조광윤에게 바친다.

각각 신기흔 피를 발하여 머리를 맞초고 흉참(凶慘)흔 죄목을 일노써 궁익(窮厄)을 연결하여 현인을 히코즈 하니 다숫가지 죄목이라. 하느흔 위헌이 항상 진왕을 폐하라 하여 군신의 도를 폐치 아니코 유즈(幼子)의 일흠 짓지 아냐, ‘폐히 스스로 지으소서. 신이 엇지 감히 태조의 명호를 지으리오.’ 하고 또 굴오디, ‘선데 잔당(殘黨)의 어즈러운 텃하를 평정하스 만인이 몽혜(蒙惠)하니, 등화의 덕이 시롭고 성상의 치를 니을너니, 역신(逆臣)이 텃위를 범하여 요순의 성덕을 찌치 못하시니, 분(憤)이 인신의 밋쳤는지라. 흘며며 느라히 망하고 쫓

지는데, 여기서 조광윤은 천자가 되기 전부터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간신에 흔들리지도 않고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는 절대적인 천자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화산선계록>과 차이를 보인다. 유요문, 「<옥주호연>의 등장인물 조광윤의 형상과 소설사적 의미」, 『어문논집』 93, 민족어문학회, 2021 참조.

시 밧피이니 이는 지원극통이라. 텃되 무심하시리오. 폐회 한번 삼척검을 들너 텃하를 호령하신즉 건곤(乾坤)을 번뒤치미 어렵지 아닌지라. (중략) 기여 진신 명스와 영웅호걸이 문하의 매여시니 일을 일우지 못하니 업느니라.’ 히미오 돌흔 진왕이 선대 좌우의 기용증물(器用什物)을 ㄴ져 참담이 버렸거늘 위현이 말녀 왈, ‘츠물이 스가의 잇슨즉 인언(人言)이 즈연 궁둥의 스못츠 송쥬(宋主) 의심허리니, 거두어 밧쳐 타인이 무의(無疑)흐를 ㄴ타닌 후 대위(大位)를 어드 신 후 물이 님즈의게 도라오미 어렵지 아니허리이다.’ 히고로 진왕이 거두어 밧치고 거쳐흐물 한스긋치 히미오, 세흔 위현이 어질물 즈랑하여 인심을 거두고 끈궁즈를 구활하여 신앙 화진을 구제하고 소세광 양문홍 님슈홍을 골경의 두어시니, 그 큰 뜻이 깃흐를 알거시오, 네흔 선비를 공경하고 현즈를 발천(拔薦)하여, 전약슈 왕성둥 설기정 등을 묘정의 드러 버러시니 이곳 다 우익(羽翼)이요, 다스스 군병을 사랑하여 스줄이 죽기로써 갑고즈 하니, 한번 손을 들미 그 세 썩르미 풍우긋고 모질미 뇌정 ㄴ허리니, 가마니 텃운을 기다리고 인스를 슬혀 그육이 눈 흘기미 오런지라. 안호로 화심(禍心)을 포장하고 밧그로 튥성을 ㄴ타니여, 인의를 항하고 덕화를 베퍼 만민이 송은하니, 일즉 상국(相國)의 위덕을 알고 텃즈의 계시물 모로논지라. (중략) 변이 묘석의 잇스리니 만일 완완이 갑고즈 혼죽 급흔 해불 우히 기름 ㄴ허리니 궁녀의 미복하고 위식 낭적을 불너드려 쳐 죽인 후 협종(脅從)을 다스리미 가하니이다.<sup>27)</sup>

고번서에서 주장하는 죄목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는 위현이 진왕 시명훈을 폐하라 부르고 시명훈의 아들을 태자라 부르며 태자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전조의 물건을 처분하는 문제를 두고 위현이 시명훈에게 ‘임금이 되면 되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세 번째는 위현이 신앙, 화진, 소세광, 양문홍 등 끈궁한 자를 구했다는 것, 네 번째는 선비를 공경하고 현자를 뽑아 조정에 자기 사람이 많다는 것, 다섯 번째는 위현에게 충성을 바치는 군대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27) <화산선계록> 권68, 5~12쪽. 밑줄은 인용자.

죄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외하면, 나머지 죄목들은 역모의 직접적인 증거라 보기에는 모호하다. 특히 세 번째 죄목은 위부의 덕행과 인망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역모죄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자칫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들이 ‘죄목’으로 제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고변서의 허술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죄목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각각의 내용은 왕조교체 과정에서 위부가 수행했던 핵심적인 역할과 맞닿아 있다. 왕조교체기에 위현이 수행했던 주요 역할들—곽소옥 일당의 토벌, 시명훈의 양자 입적, 유민의 포용과 공동체 통합 등—은 당시에는 송 왕조의 성립에 기여한 공로로 간주되었으나, 고변서에서는 이 모든 행적이 역모의 징후로 전복되어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즉 송 건국 과정에서 위부의 역할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언제나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맥락에 따라 역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화산선계록>의 작자도 의식하는 것이다.

이 고변 사건은 조광윤 일당이 조광윤을 곁에서 보좌하는 상궁까지 포섭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과 달리, 위현에 대한 조광윤의 무한한 신뢰로 인해 다소 싱겁게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현의 군대로 무장한 반란군이 궁궐에까지 침입한 사건이므로, 위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헤프닝 정도로 끝나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이마를 찡으며 조광윤에게 사죄하고, 식읍과 벼슬을 반납하고자 다섯 차례나 사직소를 올린다. 물론 조광윤의 완강한 반대로 사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고변서가 올라온 그 순간부터 위현은 중앙 정치에서 물러날 결심을 굳힌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불충을 사죄하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광윤의 개인적인 신뢰와 후의가 아니었다면, 위부는 자칫 역모죄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왕조교체라는 국가적 대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위부가 감당했던 일들이 훗날 가문을 위협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가문의 안위를 위한 결단으로 사직을 택한 것이다.<sup>28)</sup>

왕이 화궐을 항홀시 열읍(列邑)이 진경하여 소산 등물을 궂초와 영하여시니, 빅은 츠일과 푸른 당막은 청산을 막으시니 그림 병풍과 금로진이 휘황현요흔지라. 오식기치는 춘풍의 누붓기고 도창검극이 일시의 네를 항하니, 왕이 혼연이 신노를 관접하고 인하여 막츠의 니르미, 주식의 풍성함과 찬선의 슴이흐미 비길 곳 업더라. 다시 길히 오롤시 진술을 궂치고 완완이 항하여는 진국 군병 당시 호위하여 엄엄한 위의 피홀 끼고 들홀 덤허사니, 왕이 스스로 불안하여 봉국(封國)을 스양홀 뜻이 더욱 곱흐난지라. 거년(去年)의 스화를 지닌 후로 왕 위를 바릴 의시 잇던지라.<sup>29)</sup>

<화산선계록>에서 역모 사건에 대한 위현의 내면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함께 사건을 겪은 시명훈의 입장을 통해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위는 시명훈과 위현 일행이 경사에서 화산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봉국이 있는 시명훈은 진국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호화로운 행렬을 이끈다. 그의 신분상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시명훈은 오히려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봉국을 반납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이는 그가 유달리 검소하거나 사치를 꺼려서가 아니라, 바로 앞서 있었던 역모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위현이 왕조교체의 주역이었음에도 역모에 휘말린 것처럼, 전조의 후손인 시명훈 역시 봉작을 유지하는 이상 언제든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된 것이다. 이처럼 시명훈은 전조와의 연속

28) 조광윤과 위현이 조력자이자 친구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현은 왜 자신의 역할함을 조광윤에게 직접 호소하지 않았는지, 또 왜 친구라는 관계적 특성이 고변 사건에서만 무시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장면이 <화산선계록>이 강조하고자 하는 국가와 가문의 관계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작중에서 조광윤은 여전히 위현을 친구로 대하지만, 위현은 조광윤을 친구가 아닌 천자로 대하며 철저히 위계를 구분짓는다. 곧 위현의 침묵은 가문의 안위를 위해 국가 권력과 거리를 두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사사로운 관계라 하더라도, 일단 조광윤이 천자에 오른 이상 위현은 가문을 보전하기 위해 신중한 처신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29) <화산선계록> 권75, 71~72쪽. 밑줄은 인용자.

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이후 자진하여 봉국을 반납함으로써 왕조교체의 도구적 역할에 머물렀음을 스스로 증명한다.

역모 사건 이후 위현은 우울감과 향수병으로 경사를 떠나 자주 화산에 들르고, 결국 작품 말미에는 사직하고 화산에 은거한다. 이때 시명훈 또한 봉국을 포기하고 위현을 따라 화산으로 떠난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사직하고 물러나는 모습은 고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서사적 장치이지만, <화산선계록>에서 이 장면은 위현이 이른 태평성대와 대비되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본래 위부는 당이 멸망한 후 화산에 은거하는 처사 가문이었으며, 위현은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입신양명을 꿈꾸는 인물이었다.<sup>30)</sup> 그런 위현이 출세하여 왕조교체의 중심인물이 되었다가, 결국 가문의 안정을 위해 다시 화산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작품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문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구체화한다. 국가의 중추를 대신할 만큼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위현이 근거지로 돌아가는 것은, 국가와 가문의 관계가 언제든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1)</sup>

30) 출사에 대한 위현의 뜻은 작품 초반에 주로 언급된다. 그는 어릴 때부터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치군요순(致君堯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현양부모(顯揚父母)하여 자손이 대대로 영효(榮孝)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뜻을 알아본 진처사가 위현을 가르쳐 과거에 급제하도록 만든다. <화산선계록> 권1, 9~11쪽 참조.

31) 이와 관련하여 작중 서술자의 언급을 주목할 수 있다. <화산선계록>에서는 서술자가 미래에 대해 예견하는 언급이 드물게 보이는데, 바로 위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아직 조광윤이 천자가 되기 전, 마치 형제처럼 보이는 위현과 조광윤의 모습을 그려내며 서술자는 위현의 미래에 대해 예견한다. 위현은 세상의 밝은 선비이고 이밀(李密), 등우(鄧禹) 같은 충신의 무리이지만, 조광윤의 사랑함이 과도하여 결국에는 재주를 다하지 못하고 청풍명월에 임하(林下)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후에 벌어질 모함 사건은 물론, 왕실과 위부의 관계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장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위공즈는 세상의 붉은 선비라. 니밀(李密) 등우(鄧禹)의 무리여날, 도공의 스랑히미 과도하여 오늘날 이 말습이 우연이 발하여, 공지 맞춘니 지도로 다 못하고 청풍명월의 님호로 물너니, 츠희라! 군신의 지극히미여!”(<화산선계록> 권5, 44~45쪽).

이러한 불안은 <화산선계록>의 전편인 <천수석>에서도 드러난다. <천수석>은 처사 가문의 아들 위보형(韋保衡)이 동창공주(同昌公主)와 혼인해 부마가 되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동창공주 사후 모함을 받아 낙향하는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작품에서 위부는 당 의종의 지극한 총애를 바탕으로 한때 권세를 누리지만, 동창공주 사후 새로이 총애를 받은 후궁 이초혜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곧바로 역모의 누명을 쓰고 몰락하게 된다. 사위인 위보형을 총애하던 의종조차 조작된 역모 혐의 앞에서는 끝내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고, 위부는 결국 권력의 정점에서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 비슷한 궤의 서사가 위보형의 증손자인 위현에게서 똑같이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은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이 공유하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즉, 국가와 긴밀히 결속된 가문조차 결국 국가와의 관계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불안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 2) <화산선계록>의 소설사적 의의

조선 후기 고소설에서 주인공 가문이 국가를 돕는 영웅적 행위는 소설 유형을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란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천자를 구출하거나, 지극한 충절로 천자를 깨닫게 하여 간신을 제거하게 하는 서사는 고소설에서 주인공의 특출함을 부각하는 전형적인 장치로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대개 국가의 일시적 위기로 설정될 뿐,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천자는 본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로 설정되며, 일시적인 위기를 맞더라도 주인공의 활약에 힘입어 곧바로 구제되고, 그 대가로 주인공은 포상과 영예를 부여받는 서사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화산선계록>은 왕조교체기라는 비상한 시기를 서사의 중심에 놓고, 국가의 근간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시기에 가문이 그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모습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위부는 후주의 몰락과 송의 성립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과정 속에서, 새 왕조의 건국 명분과 정통성, 사회 통합에 이르기까지 왕조교체에 필요한 중대 과제들을 가문 차원의 사적 관계망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이는 단순히 신하로서의 충절을 강조하는 기존 서사와 구별되며, 가문의 역할과 정치적 입지를 정면에서 조명한 서사적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화산선계록>은 국가의 구조적 위기가 가문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되고 극복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문장편소설에서 가문과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와 가문의 관계가 서사 전면에 드러나고, 가문의 입지 자체가 문제시되는 사례는 국문장편소설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물론 다른 작품들에서도 국가와 가문이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천자의 강요로 인한 공주혼이나, 변란 속에서 정치적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가문의 이야기는 다양한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명을 배경으로 정난지변(靖難之變)을 서사화한 작품들에서는, 건문제에게 충성하던 가문이 새 임금인 영락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영락제의 강요와 출사에 대한 고민이 그려지며 국가와 가문의 긴장이 포착된다.<sup>32)</sup> 그러나 이처럼 갈등이 서사에 등장하더라도, 대부분은 주인공의 특출함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로 제한되며, 국가와 가문의 관계 자체가 본격적인 문제의식의 대상으로 심화되지는 않는다. 요컨대 영락제를 피해 출사를 거부하던 가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결국 출사를 결정하지만, 일단 출사한 후에는 그러한 갈등이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다.<sup>33)</sup>

32)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박영희, 「長篇家門小說의 明史 수용과 의미: 靖難之變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김동욱, 「고전소설의 정난지변(靖難之變) 수용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김서윤, 「〈쌍널옥소록〉의 정난지변 서술시각과 그 시대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50, 한국고전문학회, 2016.

이에 비해 <화산선계록>은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여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가문이, 오히려 그 역할로 인해 국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가문의 안정을 위해 다시 처사 가문으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위부의 행적은 새 왕조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행위이지만, 왕조가 안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업적이 역모의 가능성으로 재해석되며 가문의 입지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즉 <화산선계록>은 가문이 감지하는 정치적 불안과 긴장의 감각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위부의 입장에서 송 왕실은 함께 이룩한 성취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창업주와의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문을 위협할 수 있는 불신의 대상, 곧 통제 불가능한 공적 권력으로 인식된다. 결국 이 작품은 국가와의 밀착이 곧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적 긴장 속에서, 가문이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은 <화산선계록>뿐만 아니라, 전작인 <천수석>과의 연계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다. <천수석> 또한 당의 멸망과 후당의 건립이라는 혼란기 속에서 위부가 겪는 위기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며, 당 왕실에 가장 충성했던 가문인 위부가 새로운 후궁의 모함으로 낙향하고, 끝내 화산에 은거하는 모습으로 서사를 마무리한다. 이러한 전개는 <화산

---

33) 이러한 예로는 <성현공숙렬기>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임한주·임한규 형제는 본래 벼슬길에 있었으나, 부친상을 당해 고향에 내려간 사이 정난지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자취를 감춘다. 영락제는 이들을 등용하고자 하나 행방이 묘연해지자, 어머니 관태부인의 필체를 위조한 거짓 편지를 보내 형제를 불러낸다. 임한주 형제는 편지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염려로 귀가하게 되고, 결국 영락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임한주는 출사를 결심한다. 그러나 출사 이후 작품의 서사는 임부 내 계후 갈등으로 중심이 이동하며, 국가와 가문의 문제는 더 이상 주요한 서사 축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국가와 가문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조명하지만, 그 초점이 오래 유지되지 않으며 국가와 가문의 관계는 중심 서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선계록>에서 위현의 서사와 유사하며, 처사 가문으로 몰려나면서 가문의 계승과 안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두 작품은 공통된 서사 구조를 공유한다. 결국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가문은 표면적으로 충성을 다하지만 동시에 국가를 경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긴장감이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두 작품이 동일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는지의 여부는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들 작품이 왕조교체기를 다루면서 국가와 가문의 관계를 유사한 결로 그려냈다는 점은 두 작품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sup>34)</sup>

한편 시대적 맥락에서 <화산선계록>이 지닌 함의 또한 주목할 만하다. 현존하는 자료로 볼 때, <화산선계록>은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까지 주로 향유된 작품으로 추정된다.<sup>35)</sup> 국문장편소설에서 19세기는 소설 유형 간의 접목이 활발해지고 통속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주인공이 몰락한 집안

34) <화산선계록>과 전작인 <천수석>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논의의 핵심은 두 작품이 과연 동일 작가에 의한 연작 관계이냐는 것이었는데, 영웅형 주인공의 변모하는 세계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소설’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천수석>과 달리, 후속작인 <화산선계록>에서는 유교 윤리를 답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산선계록>이 <천수석>의 적극적 독자가 작품의 지향점에 반발하여 창작한 새로운 작품이라 보는 견해가 제출되는가 하면(서정민(1999), 앞의 논문), <화산선계록>이 <천수석>의 심미적 환상주의를 극복한 작품이라고 보는 논의가 발표되기도 하였다(최영아(1997), 앞의 논문). 전·후작 작가의 동일성 여부를 곧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작품의 주제의식은 물론 인물의 형상화 방식과 서술 문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 작품에서 국가와 가문의 긴장 관계가 유사하게 그려졌다는 점은 작가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5) <화산선계록>의 향유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로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설 목록인데, 모리스 쿠랑이 남긴 <한국서지>의 소설 목록과 홍희복이 번역한 <제일기언>의 서문이 남아 있다. <화산선계록>은 두 소설 목록에 모두 등장하는데, <한국서지>의 집필 시기는 1890~1892년 사이이고 <제일기언>의 번역 시기는 1835~1848년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화산선계록>의 창작 시기를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으로 보았다(김진세(1986), 앞의 논문, 1~3쪽; 최길용(1992), 앞의 책, 226쪽).

을 다시 일으키거나, 반대로 주인공 가문이 위기를 맞이하는 서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기이다.<sup>36)</sup>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문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18세기 초·중반 국문장편소설의 경향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화산선계록>의 서사는 가문의 위기와 회복,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긴장과 불신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19세기 국문장편소설 독자들의 변화한 가문 인식과 권력 관계에 대한 자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문의 입장에서 국가는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설령 왕조 성립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가문이라 하더라도, 정세에 따라 언제든 그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sup>37)</sup>

종합하면 <화산선계록>은 국가의 위기와 왕조의 교체라는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가문이 수행하는 역할을 전면으로 다룸으로써, 조선 후기 국문장편소설이 보여주는 정치적 상상력과 국가와 가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집약한 텍스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6) 19세기에 향유된 것으로 알려진 국문장편소설로는 <창란호연록>과 <하진양문록>, <엄씨효문청행록>, <양문충의록> 등이 있다. <창란호연록>과 <하진양문록>은 쇠락했던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내용이며, <엄씨효문청행록>과 <양문충의록>은 반역자와 그 자손들이 가문을 일으키고 선대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37)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사회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와 가문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천수석>과 <화산선계록> 연작이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 사이에 성립된 작품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시기의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한 분석은 본 논의의 외연을 넓히는 데 유의미할 것이다. 다만 본고는 『화산선계록』의 내적 서사 분석에 집중하였기에, 지면과 범위의 한계로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천수석>과의 연작 관계를 포함하여 사회사적 맥락에 대한 논의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논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4. 나오며

본고는 왕조교체기라는 특수한 시공간을 전면적으로 다룬 국문장편소설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국가를 보완하는 가문의 역할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여타의 국문장편소설들이 주로 가문의 번영과 혼인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국가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그려낸 데 반해, <화산선계록>은 왕조교체라는 중대한 국면을 맞아 국가 권력의 공백을 형상화하고 이를 가문이 매우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위부는 창업주 조광윤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뿐 아니라, 전조의 정통을 상징하는 인물을 포섭하고, 유민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재편하는 등, 왕조교체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중심축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부의 전면적 개입은 단순한 충성이나 협력의 차원을 넘어선다. <화산선계록>에서 위부는 창업주의 조력자이자 국가 건설의 실질적 기반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왕조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행적이 역모의 가능성으로 전환되어 가문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는 단순히 영웅 서사의 반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과 질서를 세우는 데 공헌한 가문조차도 정치 권력의 논리 앞에서는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부의 화산 회귀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가문 보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전편 <천수석>의 서사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두 작품에서 위부는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만 모함을 받고 화산에 은거하게 되며, 국가와의 밀착이 오히려 가문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화산선계록>은 이러한 서사를 통해 국가와 가문의 관계가 언제나 화합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만 형성되지 않으며, 왕조교체라는 시기에 가문이 때로는 국가보다 더 주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한다는 사실을 강조

한다. 이 과정에서 가문은 국가와 협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는 19세기 국문장편소설의 경향과 맞물리며,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보다는 가문의 생존 전략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화산선계록>은 국가와 가문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사유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문장편소설의 가문 서사가 단순한 가문의 번영을 재확인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공적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가문을 성찰하고 재구성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화산선계록>(80권 80책, 장서각 소장본)

- 김강은, 「<천수석>에 구현된 국가의 존망과 가문의 존재 양상」,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141~172쪽.
- 김동욱, 「고전소설의 정난지변(靖難之變) 수용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311~340쪽.
- 김민정,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여주인-시비(侍婢)’의 관계-시비 설란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1, 한국고소설학회, 2021, 71~115쪽.
- 김민정,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조력자로서의婢僕-비취-비운 남매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21, 197~232쪽.
- 김서윤, 「<쌍널옥소록>의 정난지변 서술시각과 그 시대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50, 한국고전문학회, 2016, 159~189쪽.
- 김정숙,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서사구조-<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2013, 173~200쪽.
- 김진세, 「<화산선계록> 연구 1」, 『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4, 1~32쪽.
- 김진세, 「조선후기 대하소설 연구-<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6, 1~25쪽.
- 박영희, 「長篇家門小說의 明史 수용과 의미: 靖難之變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91~216쪽.
- 서정민,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의 대응적 성격과 연작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1~95쪽.
- 양종국, 「송왕조 건국기 진교역 정변과 천명사상」, 『역사와 담론』 48, 호서사학회, 2007, 119~164쪽.
- 유요문, 「<옥주호연>의 등장인물 조광윤의 형상과 소설사적 의미」, 『어문논집』 93, 민족어문학회, 2021, 35~59쪽.
- 이지영, 「조선시대 한글장편소설에 구현된 가상세계로서의 역사」,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111~137쪽.
- 이지하, 「가족관계를 통해 본 <천수석>의 특징과 의미」, 『고소설연구』 46, 한국고소설학회, 2018, 249~282쪽.

- 이지하, 「〈화산선계록〉 속 노비 형상화의 특징과 노비의 존재성」, 『반교어문 연구』 62, 반교어문학회, 2022, 95~124쪽.
- 장시광,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계모이야기의 양상과 의미」, 『국제어문』 28, 국제어문학회, 2003, 85~120쪽.
-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 연구 -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한국고소설학회, 2006, 197~238쪽.
- 정재윤, 「〈화산선계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4a, 1~249쪽.
- 정재윤, 「문창성(文昌星)의 전용(轉用) 양상과 의미 - 〈유씨삼대록〉과 〈화산선계록〉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 『영주어문』 56, 영주어문학회, 2024b, 393~421쪽.
- 주수민, 「조선 후기 가문소설의 시·공간 배경과 재위 황제」, 『어문연구』 4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83~110쪽.
-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 연구: 〈천수석〉 및 〈임화정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8, 1~205쪽.
- 채윤미,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선계와 인물 정체성의 관계」, 『도교문화연구』 57, 한국도교문화학회, 2022, 271~304쪽.
- 최길용, 「〈천수석〉 연작」,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1~541쪽.
- 홍현성, 「대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선 면모 주인공 연구 - ‘취승루’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82, 한국문학회, 2019, 163~192쪽.

ABSTRACT

The Shifting Role of the Family  
in Korean Classical Novels Set During Dynastic Transitions  
- Focusing on *Hwaseon Seongyerok*

Kim, Kang-eun

This study examines the narrative function and significance of the family that assumes a central role in place of state authority in the Korean classical novel *Hwaseon Seongyerok*, set during a dynastic transition. While most Korean long novels focus on the prosperity of noble families and the personal success of protagonists, using national crises merely as a background device, *Hwaseon Seongyerok* uniquely foregrounds the dynastic change as a major narrative axis and depicts in detail the process by which a single family substitutes for the functions of a failing state. The Wi family not only contributes to the legitimacy of the new dynasty through it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ounder Jo Gwang-yun, but also integrates displaced royal descendants and refugees, reconstituting fragmented communities and restoring social order. In this respect, the Wi family functions not merely as a loyal subject or collaborator, but emerges as an ethical and political agent that temporarily replaces the state during its absence.

However, the family's active intervention is not simply a source of honor. Once the new dynasty stabilizes, the very acts that supported its founding are reinterpreted as signs of treason, placing the Wi family's survival in jeopardy. That a founding family and key contributor to dynastic legitimacy can so swiftly become a target for political elimination reveals the ambivalence embedded in the narrative toward state power. The protagonist Wi Hyeon's decision to retreat from politics and return to seclusion in Mount Hwasan is thus not a mere withdrawal, but a strategic act of preservation. This motif echoes the earlier narrative of

*Cheonsuseok*, the preceding work, where the Wi family, despite its proximity to the throne, is similarly exiled after falling victim to palace intrigue. Both novels suggest that intimate involvement with public power carries inherent risk and that maintaining a measured distance from the state may be the only viable path to survival.

Such narratives signal an attempt by Korean long novels to critically reimag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family. *Hwaseon Seongyerok* explores the political potential of the family as a substitute for the state while at the same time rendering the tensions and vulnerabilities that arise from such substitution. In doing so, the family is portrayed as a self-governing and adaptive entity that must continually assess its position and make decisions for its own preservation. Given the prevalence of narratives involving the decline and recovery of noble families in 19th-century Korean fiction, *Hwaseon Seongyerok* reflects a historical consciousness in which public authority is no longer seen as an unquestionably reliable force. Ultimately, this novel is not merely a story of familial glory, but a meaningful narrative experiment that probes how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is redefined and restructured within the volatile dynamics of state power.

**Key Words** *Hwaseon Seongyerok*, dynastic transition, state, family, foundation of a dynasty

논문투고일: 2025.4.14.

심사완료일: 2025.5.9.

게재확정일: 2025.5.19.